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과 정책적 시사점

조복희 소장

일찍이 우리는 선조들의 속담을 통해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또는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자주 인용해 왔다. 우리가 이러한 속담을 인용해 왔을 뿐, 어떤 근거에 의해 그런 결과가 파생되는지 확신은 가질 수는 없었다. 아마도 우리의 선조들도 확신이라기보다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21세기의 과학과 학문의 발전을 통해 그러한 속담으로 형성되었던 공감대가 실제 현상으로서 밝혀지고 있다. 조상들이 경험적으로 어릴 때의 모습 속에서 미래의 어떤 모습이 될지를 그려냈으면 현재에는 과학을 통한 제 학문의 영역들이 그것이 어떤 발달 경로를 거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어린 시기의 모습이나 경험이 얼마나 전 생애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와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와 아동에 관한 일은 대부분 여성들이나 결혼하여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주부들이 해야 할 일들로 치부하면서 여성들만의 직관으로 충분히 해결해야 할 분야를 굳이 학문이나 정책의 대상으로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영유아 연구와 아동학 연구의 등장으로 아이는 아무나 키울 있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잘 키우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세계의 많은 아동발달 관련 논문들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영유아기의 생애발달에 있어서 민감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경험이 이후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미시적인 관점과 거시적인 관점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그 경로를 추적하고 밝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의 영유아와 아동이 학문적 대상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영유아기의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관심과 정책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영유아기의 신체적 발달은 그 어느 시기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생후 2년이면 성인키의 절반가량, 체중은 출생 시의 4배이며, 그 이후로도 2~5세 까지 매해 신장 7cm, 체중 2kg 씩 증가한다. 한편 영유아기의 뇌 성장도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두 돌 무렵이면 성인의 75% 무게, 유아기 말인 5세경이면 90% 이상의 무게를 가

지게 된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의 양육이 이러한 신체적·인지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이 뇌단층 촬영 기술의 발달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인지적 뇌보다 정서적 뇌가 더 먼저 성숙된다는 것은 영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린 시절 경험했던 정서상태가 뇌의 후두엽에 기억되어 이후의 학습이나 경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뇌 연구의 결과는 신경학적 발달에 미치는 영유아에 대한 초기 양육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의 양육자로부터의 적절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성장 장애와 정상적인 두뇌 발달을 방해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기의 경험적 결핍은 이후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라는 점을 통계적으로 환산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경험적 결핍이 있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공공 부문으로 보는 움직임은 최근 교육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오고 있다. OECD의 자료에 의하면,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은 공익=한 국가 아동의 건강수준, 미래의 교육 성취, 노동시장의 규모,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분야라는 것이다. 또한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쿠나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은 영유아기를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의 학자들은 인적자본 형성을 일생동안 지속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기초 단계인 영유아기에 투자하면 다음 단계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또 그 다음 단계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8월 국제 세미나에서 ‘조기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주제로 인적 자본 조기 투자에 대한 효과를 알리고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을 촉구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련하여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이번에 국가가 「만 5세 누리과정」을 제정한 것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보다 적극적 역할과 개입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러한 지원을 연령대별로 더 확대하고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위한 새로운 투자도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에 지원·투자하는 재정비율은 아직도 OECD가 권장하는 GDP 대비 1%가 안 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연구소는 한국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